

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 曉泉 康忠男 연구

고 광 명*

<목 차>

I. 머리말	IV. 강충남의 경영정신과 지역사회공헌
II. 강충남의 생애와 업적	V. 맺음말
III. 강충남의 경영활동과 자본형성	< 참고문헌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일본사회에서 전기전선(電氣電線)공업회사를 경영하면서 재일제주인의 자본형성에 기여하고, 제주도 지역발전에 공헌한 효천(曉泉) 강충남(康忠男)의 경영정신과 사회적 공헌 등을 고찰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강충남은 일본 사회에서 富士電線工業(주) 등을 경영하면서 재일제주인의 자본을 형성하여,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다한 기업가였다. 둘째, 강충남은 전기전선 분야로만 충실하게 한 우물을 파며 다져진 신뢰를 바탕으로 일본 내에서 합성수지 전선, 고무전선 제조, 배선기구, 플러그, 단말기 가공 등을 제조·판매한 입지전적(立志傳的)인 인물이다. 셋째, 강충남은 해방 이후 최근까지 50년 간 이상을 일본 사회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일제주인 기업을 성장·발전시켜 온 기업가였다. 넷째, 강충남은 1955년 富士電線工業(주)을 비롯하여 5개 회사 등을 차례로 설립·운영하면서 성실(誠實), 신용(信用), 인간중심(人間中心)의 경영정신을 바탕으로 경영성과를 이룩한 기업가였다. 다섯째, 강충남은 관서제주도민협회(關西濟州道民協會)를 비롯한 상공인단체, 민단 등에서 임원을 역임하면서 제주도민의 화합을 이끈 기업가였다. 여섯째, 강충남은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을

* 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XXXXXXXXXXXXX)

자신의 부(富) 축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주대학교에 학술연구 기금을 기증하거나 고향 발전에 공헌하는 등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을 행동으로 실천한 기업가였다.

따라서 강충남은 일본 사회에서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경영정신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여 왔다. 결국, 그는 富士電線工業(주) 등 여러 사업 분야에서 기업가활동을 수행하면서 그 수익의 일부를 제주지역의 교육사업과 마을 발전에 공헌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재일제주인 기업가였다고 볼 수 있다.

I. 머리말

본고는 재일(在日)제주인¹⁾ 기업가 중에서 전기전선공업을 통해 부(富)를 축적하고, 재일제주인의 자본형성에 이바지한 효천(曉泉) 강충남(康忠男)의 기업가활동을 고찰한 것이다. 강충남은 일본 간사이(關西)지역에서 활동한 사업가로서 1955년 富士電線工業(주)을 시작으로 1971년 富士電線販賣(주) 등 5개 회사를 설립하여 상당한 경영성과를 이룩한 재일제주인의 대표적인 기업가이다. 그는 誠實, 信用, 人間中心經營 등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았으며, 전기전선 분야에 심혈을 기울인 전략적 사고를 가진 기업가이다.

在日本濟州道民會(1993)에 의하면, 당시(1991년 기준) 일본에서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고액납세 신고자(법인회사)는 도쿄(東京) 4명, 고베(神戸) 2명, 오사카(大阪) 25명 등 총 3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는 재일제주인의 전체 신고액 12,634 백만 엔 중에서 1990년(866백만 엔)보다 약간 늘어난 875백만 엔을 신고함으로써 일본 내에서 5,562 순위를 차지한 바 있다.²⁾

강충남은 1955년 2월 富士電線工業(주)³⁾을 창업하여 일본 내에서 합성수지 전

1) 2009년 기준 현재 재일제주인은 재일한인 589,239명 중 93,162명으로 약 15.8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일한인 전체 중에서 경상남도 161,447명, 경상북도 118,479명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入管協會(2009), 『在留外國人統計』.

2) 在日本濟州道民會(1993), 『日本の濟州魂：在日本濟州道民會30年史』.

3) 강충남은 1940년 일본으로 이주한 이후 1955년 大阪府 柏原市 本郷에서 후지전선공업(주)을 설립하여 전기전선공업 등을 경영하며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동사는 1976년 기준으로 자본금 4,500만 엔, 종업원 수 200명, 연간 매출액 100억 엔을 달성하여 일본 사회 내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기용 경동(硬銅)선, 연동선(전선) 제조판매, 평형고무 코드(시장점유율 30%, 1위), 캡(cab)타이어케이블(시장점유율 25%, 1위), VVF케이블(시장점유율 16%, 1위) 등이다. 統

선, 고무전선 제조, 배선기구, 플러그·단말기 가공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입지전적(立志傳的)인 인물이다.

더욱이 그는 富士電線工業(주)을 비롯하여 富士電器工業(주), 富士電線販賣(주), 富士電精工(주), 富士電工(주)³⁾ 등 전기전선 그룹을 경영하면서 그 수익의 일부를 일본 사회에 투자하고 제주도 지역발전에 공헌을 다한 재일제주인 기업가였다. 그런 의미에서 재일제주인의 자본형성과 경영성과인 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했던 효친 강충남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재일제주인 기업가들에게 많은 교훈을 제시해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공식·비공식 자료와 통계, 신문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일본 사회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고향에 애향심을 표현한 강충남의 기업가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고에서는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을 조명하기 위해 강충남이 어떤 철학과 사고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발휘하였는가에 대하여 체계적인 고찰을 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재일제주인의 기업가활동을 규명하는 것은 비단 제주도 출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일한인 기업가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며, 특히 일본이라는 특수한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활동한 재일한인 기업가들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강충남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본 후, 다음으로 강충남의 경영활동과 자본형성을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강충남의 경영정신과 지역사회공헌을 파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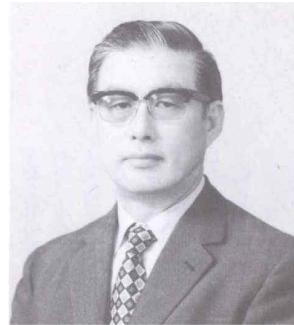
一日報社(1976), 『在日韓國人企業名鑑』.

3) 富士電工(주)은 大阪市 生野區 中川에서 주로 전기배선기구제조·진공성형업(眞空成型業)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邵英二(大原英司)가 취체역을 맡고 있다. 共同新聞社(1989), 『在日韓國人實業名鑑 1 (關西版)』.

II. 강충남의 생애와 업적

1. 강충남의 생애

강충남⁴⁾은 1926년 5월 24일(호는 曉泉, 본관은 谷山 康氏 入島 19세손) 제주도 남제주군(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細花里)에서 태어났다. 그는 표선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1940년 14살 때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친척이 경영하는 고무제조 공장에서 고학을 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역척같은 소년이었다.⁵⁾



<사진 1> 재일제주인 기업가
효천 강충남

19세 되는 해 조국의 해방을 맞은 그는 많은 재일한인(在日韓人)들이 귀국을 서두르는 북새통에서도 성공하기 전에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각오로 혼란이 심한 오사카 거리를 누비며 장차 훌륭한 기업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제주도 출신들이 밀집해 사는 오사카에서 친척이 경영하는 전선(電線) 관련 공장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성실히 노력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전기전선 생산·제조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도 전기수요 급증에 따른 전선 공급을 생각하여 성장가능성이 있고 건실한 생산 업종에 대한 기업을 경영하겠다는 꿈을 키워나갔다. 이후 그는 오사카전문학교(舊制 大阪專門學校)를 졸업한 후 太洋化學工業(주)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전기에 대한 지식을 터득하고 전선 관련 서적을 탐독하면서 직접 실습에 나서는 등 노력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자신감이 생겼다.

그는 6·25동란이 끝나 뒷수습이 한창인 무렵 지금까지 근검절약으로 모아둔 약간의 자본과 빚을 얻어 1955년 2월(자본금 2백만 엔) 30대 초 젊은 나이에 주택·토목·건설부문 등 전선제조 사업에 뛰어들 결심을 하여 富士電線工業(주)을 창업

4) 강충남은 일본으로 건너간 후 김해옥(金海玉)씨와 결혼하여 자녀 2남(隆彦·章秀)을 두었는데, 모두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가업을 계승하여 사업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康隆彦(장남)은 明治大學을 졸업한 후 후진전선공업 사장(2001년 기준)을 맡고 있고, 康章秀(차남)는 후진전선공업 부장(2001년 기준)을 맡으면서 關西濟州道民協會에서 청년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라일보사(2001), 『濟州 3000人選』.

5) 吳大賢編著(1983), 『表善面郷土誌』, 泰明印刷社, 59쪽.

하였다. 당시 후지전선공업은 일본에서 재일한인 기업이 전선회사를 창립한 최초의 회사였다고 회고할 정도로 성장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창업 후 동사는 얼마동안 고난의 연속이었으며, 급여 수준이 낮고 작업 환경이 연약한 중소기업으로서 좋은 제품이 생산될 수가 없었다. 특히 대부분의 전선업체가 판매부진에 허덕이는 실정에서 재일한인 기업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으며, 신용도 낮아 적자 경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초기에는 일본으로 이주할 때 각오와 그 동안 일본에서 배우고 익힌 기술로 창업은 했지만 뿌리 깊은 일본인의 차별과 일본의 경기악화로 인해 악전고투(惡戰苦鬪)의 험난한 길을 걸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원들이 일하는 보람과 희망을 갖고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목표를 명시하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생활의 좌우명이자 기업경영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성실과 신용으로 직원들의 임금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 그리고 품질표준화와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전사적으로 추진되는 직원교육에도 힘썼다.⁶⁾

또한 그는 '보다 좋은 제품을 보다 안전한 사회에 보낸다.'는 경영정신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였다. 후지(富士) 마크가 선명한 그의 상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면서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신용을 통한 거래처가 증가하고 품질보증이 이를 크게 뒷받침했다.⁷⁾ 그 결과, 동사는 연간 매출액 200억 엔, 일본 시장점유율 60%로 동업 420개사 가운데 제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바 있다.⁸⁾ 결국, 재일한인 기업으로 최초의 전선회사인 후지전선공업은 품질표준화와 품질관리 제도를 일찍이 도입하여 1964년부터 전선업계 주류였던 다품종소량생산에서 고품질을 목표로 전환하여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에 편승하여 크게 신장했다.

이후 그는 전기전선공업 분야에서 튼튼한 기반을 다져 경영관리 우량기업으로 선정되고, 일본 사회에서 신뢰를 쌓는데도 노력하여 1967년 大阪通商産業局長賞을 받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동사는 품질관리 우량공장으로 선정되어 1967년 大阪府知事賞을 받았으며, 이듬해에는 합리화 모델공장으로 지정되어 中小企業廳長官賞을 받았다. 1970년에는 공장표준화를 실시하는 우량공장으로 선정되고, 1년 후 1971년에는 中小企業研究센터賞을 받았다. 또다시 1973년에는 공업표준화를 실시하는

6) 濟州商工會議所(1995), "일본사회에 民族의 신용을 뿌리 내린 후지전선 康忠男 사장", 『濟州商工』 2월호(제269호), 35쪽.

7) 姜龍三·李京洙 編著(1984), 『大河實錄 濟州百年』, 泰光文化社, 1324~1325쪽.

8) 강충남(1994), "일본 속의 큰 제주인", 『제주도』 통권 제96호, 제주도, 26~31쪽.

우량공장으로 선정되어 工業技術院長賞을 받는데 이어, 1981년 10월(자본금 1억 엔 이하의 중소기업)에는 사상 최초로 공업표준화와 품질관리 우량공장으로 선정되어 일본 공업계에서 최고 영예인 通産大臣賞⁹⁾을 수상하였다. 이는 그야말로 한눈팔지 않고 한 곳에만 매달려 정성과 땀을 쏟으며, 신뢰에 바탕을 두어 전기전선 제조를 통해 얻어낸 값진 결실이었다.¹⁰⁾

또한 이국의 냉대와 차별을 극복하고 오늘의 기반을 구축한 그에게는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찌든 가난과 정겨운 추억이 항상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외국에서 성공한 기업가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품어온 애향정신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화산초등학교에 비품 및 시설비, 마을에 전기·전화시설과 도로 포장비 등을 지원했으며, 1981년 표선상고에 시설비 및 이설비용을 지원하였다.¹¹⁾ 또 1984년 5월에 열린 제13회 전국소년체전에는 오사카지역 후원회장을 맡아 8억 2천만 원의 거금을 모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오사카지역에서 4개 단체(재일제주경제인협회, 재일제주도민회, 재일제주도친목회, 재일제주청년회)로 분산되어 있던 제주도 출신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서제주도민협회를 창립함으로써 오사카지역의 제주도민의 화합을 이끌었다. 당시 그는 초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운 재일제주도민단체를 통합했다”며 감격한 바 있다고 한다.¹²⁾ 이 외에도 일본 내 제주인의 중심인 그는 1994년 관서지역 제주도민협회를 처음으로 조직하며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민단오사카지방본부 고문, 오사카한국상공회의소 상담역, 관서은행(關西銀行) 이사 등을 역임했다. 결국, 그는 일본 경제의 발전과 제주도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국민훈장 동백장(冬栢章), 석류장(石榴章), 제주대학교 명예경제학 박사를 비롯하여 국무총리,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제주도지사 표창 등을 받았다.

따라서 그는 성실과 신용으로 실업계에 투신하여 온갖 역경을 극복하면서 성장하였고, 일본 사회에서 후지전선공업회사 등을 경영하면서 크게 부상한 인물이다.

9) 통산대신상은 일본 정부가 산업기술 향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해마다 일본 전국의 우수기업과 공장을 심사 및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상은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품질규격에 가장 가까운 상품을 가장 적은 원가로 일관성 있게 생산해 내는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이 상을 수상한 기업의 생산품은 일본 공업규격표시(JIS)의 상품이 되며, 일본 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마츠시다(松下), 도시바(東芝) 등 일본 유수의 대기업 대표들과 함께 수상했는데, 당시 이 상은 재일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업가 중에서 최초로 수상한 것이었다. 특히 후지전선공업은 1987년 일본 전선메이커 410사 가운데 12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연간 매출액 2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10) 姜龍三·李京洙 編著(1984), 앞의 책, 1324~1325쪽.

11)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 『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년 足跡』, 재외동포재단, 208~209쪽.

12) 在外濟州道民會總聯合會(2005), 『地球村 濟州人』, 886~887쪽.

2. 강충남의 공덕비 및 흉상 건립

표선면 세화1리에는 해방과 4·3사건 이후 어려운 시기에 춘궁기나 마을 재건에 물심으로 노력한 이들을 기리는 공적이거나 1990년대 이후 학교개설이나 이설에 기여한 공적비 등이 많이 건립되어 있다. 또한 이 마을에는 1976년 이후 전기가설이나 도로포장, 또는 마을회관 건축에 출신고장을 위해 기금을 출연했거나 기여한 이들을 기리는 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재일제주인 강충남은 제주대학교 연구기금 조성 등을 비롯한 학교 시설비, 마을의 전기가설, 도로포장, 마을회관 건립에 많은 공헌을 하여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된 기업가였다고 볼 수 있다.

1) 在日僑胞 康忠男先生 功德碑 건립

세화1리민 일동은 1978년 9월 강충남의 새마을 구판장 건립에 대한 거룩한 공적과 두터운 애향심을 영원히 전하기 위해 세화1리 비석거리에 공덕비(在日僑胞 康忠男先生 功德碑)를 세웠다. 비석 후면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비는 서쪽을 향하고 있으며, 비신(碑身)의 높이는 97cm, 너비는 30cm, 두께는 12cm이다)이 새겨져 있다.¹³⁾

先生은 本里에서 태어나 少年時節에 鵬程萬里의 大志를 품고 渡日하여 勤勉과 忍耐로서 成業을 하신 實業家이시다. 搖籃을 아끼시는 선생의 愛鄉心은 巨額을 鄉吏發展에 喜事하시어 새마을 購販場을 建立하여 주셨으니 높으신 그 功德 永遠히 빛나리다.

1978년 9월 細花里民 一同 建立



<사진 2> 在日僑胞 康忠男先生 功德碑

13) 서귀포문화원(2008), 『우리고장의 비석들』, 633쪽.

2) 康忠男先生·金海玉女史 頌德碑 건립

세화1리민 일동은 1989년 11월 康忠男先生과 金海玉女史의 마을회관 부지대금 및 신축기금 회사, 기타 도로포장, 전기시설, 구관장 신축 등에 대한 공적과 두터운 애향심을 영원히 전하기 위해 세화1리 마을회관 앞에 공덕비(康忠男先生·金海玉女史 頌德碑)를 세웠다.¹⁴⁾

비석 좌측면에는 西紀 一九八九年 十一月 表善面 細花一里 里民一同 建立이라 새겨져 있으며, 우측면에는 支援內譯 敷地代 一金 七百萬 建物分 三千五百萬원이라 새겨져 있다. 이 비는 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비신의 높이는 147cm, 너비는 55cm, 두께는 24cm이다.

1989년 11월 細花里民 一同 建立



<사진 3> 康忠男先生·金海玉女史 功德碑

3) 康忠男先生 頌德碑 건립

화산초등학교 학부형 일동은 1994년 6월 강충남의 표선고등학교 이설기반조성, 마을회관 건립, 화산초등학교 급식시설 등에 기여한 공적과 두터운 애향심을 영원히 전하기 위해 세화리 구 화산초등학교 입구에 공덕비(康忠男先生 頌德碑)를 세웠다. 이 비는 총고 134.0cm, 비신의 높이는 106.5cm, 너비는 36.4cm, 두께는 15.2cm이다.¹⁵⁾

4) 康忠男先生 功德碑 건립

마을 주민들은 2000년 6월 강충남의 거룩한 공적과 두터운 애향심을 영원히 전

14) 서귀포문화원(2008), 앞의 책, 628쪽.

15)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2009), 『표선면 역사문화지』, 221쪽.

하기 위해 세화1리 노인 회관 옆에 공덕비(康忠男先生 功德碑)를 세웠다. 비석 후면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비는 서쪽을 향하고 있으며, 비신의 높이는 66cm, 너비는 83cm, 두께는 3cm이다)이 새겨져 있다.¹⁶⁾

先生은 鄉里에서 태어나 少年時節에 大志를 품고 渡日하여 勤勉과 忍耐로서 成業을 하신 實業家 이시다. 搖籃을 아끼시고 愛鄉精神이 至極한 분으로서 地方育成發展을 念願하여 電氣, 電話, 道路 鋪裝事業, 表善商高 移設, 鄉里購販場 建立, 福祉 會館 新築, 初等學校 給食所 建立 등 數次에 걸쳐 支援하여 주셔서, 故鄉發展에 劃期的인 轉機를 마련하셨다.



<사진 4> 康忠男先生 功德碑

今般 細花一里, 二里間 郡道 擴·鋪裝 事業으로 인하여 先生께서 七十五年度에 巨額을 快擲하시어 建立한 購販場이 撤去하게 되어 새로 新築하는 購販場 建立費를 또다시 支援하여 주셨다. 先生께서 故鄉發展에 獻身 하신 그 功德 千秋에 빛나고 後代에 燦爛하니 鄉民一同은 崇高한 그 뜻을 永遠히 기립니다.

2000년 6월 24일 細花里民 一同 建立

5) 曠泉 康忠男先生 흉상 건립

제주대학교 교직원 일동은 2000년 10월 강충남의 고귀한 정성과 높은 뜻을 제주대학교의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기리고자 본관 앞에 흉상(曠泉 康忠男先生 博士像)을 건립하였다. 비석 후면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효천 강충남 박사님은 1926년 5월 24일 남제주군 표선면 세화리 출신으로 일본 대판에서 후지전선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명망 있는 사업가로서 관서제주도민협회 명예회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뜨거운 애향심과 교육발전을 위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

16) 서귀포문화원(2008), 앞의 책, 630-631쪽.

시고 1999년 10월 7일과 2000년 7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대학교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및 학술연구 기금으로 10억 원을 쾌척해 주셨습니다. 이에 기증자의 고귀한 정성과 높은 뜻을 제주대학교의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기리고자 이 상을 세웁니다.

2000년 10월 21일 제주대학교 총장 조문부의 교직원 일동



<사진 5> 曉泉 康忠男先生 博士像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강충남은 실업계에 투신하여 성실과 신용으로 일본 사회에서 거성(巨星)으로 성공하고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결국, 그는 평소 성실과 신용, 인간중심경영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아왔으며, 특히 향토애가 강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Ⅲ. 강충남의 경영활동과 자본형성

1. 강충남의 경영활동

1) 富士電線工業(주) 활동

富士電線工業(주)는 1955년 2월 일본 柏原市 本郷에 전선제조를 영업목적으로 설립하였다(창업은 1954년 8월). 동사는 1955년 일본 오사카에서 자본금 2백만 엔으로 창립하여 연간 매출액 2백억 엔, 일본 국내 1위의 시장점유율(전 품종)을 자랑하면서 전선메이커 4백10사 가운데 1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동사는 1997년 기준으로 회사대표 永野隆彦이 자본금 8천백만 엔을 투자하여 종업원 수 196명, 연간 매출액 2백6십억 엔의 중견기업으로 육성한 전기전선회사(전선케이블 제조업)이다.

경영진 구성을 보면 동사는 취체역 永野章秀, 興山友吉, 大澤 清, 永野昌樹, 落合 茂, 赤木浩二, 감사역 永野千惠子이 선임되었으며, 永野隆彦, 永野章秀 등이 투자하여 대주주로서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동사는 동(銅) 시세의 급등을 배경으로 수입을 늘리는 기조가 이어져 왔지만 2008년 10월 이후 리만 쇼크의 영향으로 가격, 수주가 후퇴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富士電線工業(주) 현황

기업명	富士電線工業(주)		대표자명	永野隆彦	
설립	1955년 2월		창업	1954년 2월	
영업목적	전선제조 100%				
자본금	81,000천 엔		종업원	196명	
임원	(代副)永野章秀, (專)興山友吉, (取)大澤 清, 永野昌樹, 落合 茂, 赤木浩二, (監)永野千惠子				
대주주	永野隆彦, 永野章秀				
소재지	大阪府 柏原市 本郷 5-5-48		사업소	奈良縣 五條市 테크노파크奈良	
업적	결산기	매출액(천 엔)	이익(천 엔)	배당(천 엔)	
	2007년 1월	30,248,955	614,102	75	
	2008년 1월	32,945,206	393,792	150	
	2009년 1월	26,297,408	234,250	-	

자료 : (주)東京商工リサーチ(2009), 『平成21年版 東京信用録-近畿·北陸版 上巻』.

2) 富士電器工業(주) 활동

富士電器工業(주)는 1971년 8월 일본 柏原市 河原町에 전기접속기 가공판매를 영업목적으로 설립하였다(창업은 1967년). 동사는 1997년 기준으로 자본금 3,600만 엔으로 창업하여 배선기구, 부속품제조업 등을 생산하는 전기공업회사이다. 이후 동사는 회사대표 永野隆彦이 자본금 4천5백만 엔을 투자하여 종업원 수 12명, 연간 매출액 6억 엔의 기업으로 육성하였다.

경영진 구성을 보면 동사는 취체역 永野千惠子, 永野章秀, 감사역 大原英二 등이 선임되었으며, 富士電線工業이 100% 투자하여 대주주로서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동사는 후지전선공업 그룹의 계열회사로서 배선기구, 플러그, 단말기 등을 제조하며 경영실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표 2> 富士電器工業(주) 현황

기업명	富士電器工業(주)		대표자명	永野隆彦	
설립	1971년 8월		창업	1967년	
영업목적	전기접속기 가공판매				
자본금	45,000천 엔		종업원	12명	
임원	(取)永野千恵子, 永野章秀, (監)大原英二				
대주주	富士電線工業 100%				
소재지	大阪府 柏原市 河原町 3-10		사업소	공장(본사)	
업적	결산기	매출액(천 엔)	이익(천 엔)	배당(천 엔)	
	2006년 7월	710,000	46,000	0	
	2007년 7월	676,000	49,000	0	
	2008년 7월	642,000	65,000	-	

자료 : <표 1>과 동일함.

3) 富士電線販賣(주) 활동

富士電線販賣(주)는 1973년 9월 일본 柏原市 本郷에 전선판매(전기기계기구 도매업)를 영업목적으로 설립하였다(창업은 1973년 9월). 동사는 회사대표 永野隆彦이 자본금 7천2백만 엔을 단독 투자하여 설립한 이후 종업원 수 40명, 연간 매출액 300억 엔의 기업으로 육성한 전선판매회사이다.

경영진 구성을 보면 동사는 취체역 永野章秀, 大原英二, 감사역 永野千恵子 등이 선임되었으며, 富士電線工業과 永野隆彦가 투자하여 대주주로서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동사는 후지전선공업(주)의 판매자회사로서 동(銅) 시세의 급등을 배경으로 업무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전반기에 들어 시세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수입이 감소하는 경향에 있다.

<표 3> 富士電線販賣(주) 현황

기업명	富士電線販賣(주)		대표자명	永野隆彦	
설립	1973년 9월		창업	1973년 9월	
영업목적	전선판매 100%				
자본금	72,000천 엔		종업원	40명	
임원	(取)永野章秀, 大原英二, (監)永野千恵子				
대주주	富士電線工業, 永野隆彦				
소재지	大阪府 柏原市 本郷 5-5-48		등기상 본사	大阪府 八尾市 久宝園 3-103	
업적	결산기	매출액(천 엔)	이익(천 엔)	배당(천 엔)	
	2006년 8월	26,200,000	871,000	-	
	2007년 8월	33,100,000	680,000	-	
	2008년 8월	30,200,000	670,000	-	

자료 : <표 1>과 동일함.

4) 富士電精工(주) 활동

富士電精工(주)은 1985년 10월 일본 柏原市 河原町에 기기용전선, 배선회로(wire harness)판매를 영업목적으로 설립하였다(창업은 1985년 10월). 동사는 회사대표 永野隆彦이 자본금 7천2백만 엔을 투자하여 설립한 이후 종업원 수 40명, 연간 매출액 40억 엔의 기업으로 육성하여 기기용전선 및 배선회로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경영진 구성을 보면 동사는 취체역 永野章秀, 落合茂, 감사역 大原英二 등이 선임되었으며, 富士電線工業, 永野隆彦, 永野章秀가 투자하여 대주주로서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동사는 후지전선공업(주) 그룹의 계열회사로서 기기용전선, 배선 판매를 손수 다루면서 매분기마다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표 4> 富士電精工(주) 현황

기업명	富士電精工(주)		대표자명	永野隆彦	
설립	1985년 10월		창업	1985년 10월	
영업목적	기기용전선 판매, 배선회로(wire harness)판매				
자본금	72,000천 엔		종업원	40명	
임원	(取)永野章秀, 落合茂, (監)大原英二				
대주주	富士電線工業, 永野隆彦, 永野章秀				
소재지	大阪府 柏原市 河原町 3-10		사업소	大阪府 柏原市 本郷 5-5-48	
업적	결산기	매출액(천 엔)	이익(천 엔)	배당(천 엔)	
	2006년 7월	3,892,000	240,000	5,000	
	2007년 7월	4,571,000	165,000	5,000	
	2008년 7월	4,247,000	193,000	5,000	

자료 : <표 1>과 동일함.

2. 강충남의 자본형성

제주도 출신들은 오사카를 근거지로 삼아 상공업 진출이 두드러졌는데, 소규모 자본을 축적한 이들은 고무, 유리, 유지, 피혁, 섬유, 잡화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까지 사업영역을 점차 넓혀나갔다. 그 중에서도 고무는 생산설비가 간단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가장 먼저 가내수공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일부 재일한인은 이

러한 가내수공업을 통해 적지 않은 재력을 모았지만 1949년 후반부터 일본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대형 제조업체가 등장함에 따라 고무공장은 점차 소멸되었다. 이후 재일한인들은 음료, 유기업, 대중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그 중에서 파친코 사업은 소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자금 회전이 빨라 사업기반이 취약한 재일한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¹⁷⁾

1950년대 중반 일본 정부의 규제로 많은 파친코 사업체가 도산하였으나 재일한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은 그다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민족계(民族系)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⁸⁾ 재일한인들은 그 덕택으로 파친코업계를 점차 장악하면서 견실한 사업기반을 구축해나갔고,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일본에서 건전한 오락문화로 정착시켜 나갔다. 전후 일본에 남아 혹독한 삶을 살아야 했던 많은 한인들이 중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른다.

그 중 상당수의 재일제주인은 일본사회에서 온갖 차별 속에 어렵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 부류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일본에 건너가 어려운 속에서도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일본 국내 굴지의 기업을 창업시킨 기업가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이주 초기 양곡판매점, 잡화상, 공장노동을 통해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전기전선공업, 플라스틱, 고무, 유리 관련 가내수공업, 신발공장, 봉제업에 종사하면서 정말 힘들게 자본을 형성해 왔다. 1970년대에 이르면서 1세 기업가들은 2선으로 물러나고 지금은 2~3세들이 전면에서 나서기 시작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다.¹⁹⁾

<표 5>에서 보면 당시(1991년 기준) 일본에서 고액납세 신고자는 도쿄 4명(4,981백만 엔), 고베 2명(1,348백만 엔), 오사카 25명(6,305백만 엔) 등 총 31명으로 대부분 회사들이 오사카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 납세 신고금액을 보면, 전체 12,634백만 엔 중에서 제주시 6,456백만 엔(9명), 한림읍 2,031백만 엔(5명), 남원읍 454백만 엔(4명), 표선면 1,689백만 엔(3명), 대정읍 1,201백만 엔(3명), 조천읍 172백만 엔(2명), 나머지 애월읍 390백만 엔, 한

17)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2005),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30年史』.

18) 梁京姬(2009), “在日韓國人企業家が韓國の金融業界に及ぼした影響—新韓銀行を中心に”, 『現代韓國朝鮮研究』 第9号, 現代韓國朝鮮學會, 16~30쪽.

19) 고광명(2010), “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도예의 기증과 투자활동”, 『日本近代學研究』 第27輯, 韓國日本近代學會, 239쪽.

경면 102백만 엔, 서귀포 49백만 엔, 구좌읍 49백만 엔, 성산면 41백만 엔 등은 각각 1명으로 제주시 출신이 50% 이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신고금액은 1990년과 1991년 기준으로 강충남이 경영하는 富士電線工業(주) 등이 다른 기업가에 비해 상위 순위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일본 내 전체 신고액 12,634백만 엔 중에서 875백만 엔(富士電線工業)과 666백만 엔(富士電線販賣)을 신고함으로써 개별 기업가로 제2위와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1991년도 재일 제주인 신고금액으로 보더라도 재일제주인은 한인경제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며 막대한 자본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재일제주인 기업가 소득신고 순위(1990년과 1991년)

(단위 : 백만 엔)

順位	會社名(所在地)	代表者(出身地)	1990년 신고금액	1991년 신고금액	일본 내 순위
1	天馬(東京)	金鳳根(濟州市)	4,228	4,462	1,121
2	富士電線(大阪)	康忠男(表善面)	866	875	5,562
3	平和産業(神戸)	姜順贊(翰林邑)	412	755	6,451
4	大邦興業(大阪)	李鼎根(大靜邑)	676	719	6,758
5	星田골프(大阪)	金致富(濟州市)	3,836	710	6,854
6	富士電販(大阪)	康忠男(表善面)	614	666	7,302
7	平和고무(神戸)	姜順贊(翰林邑)	412	593	8,271
8	盛宏(大阪)	安仁淳(濟州市)	523	461	10,717
9	光住建(大阪)	姜哲熙(涯月邑)	122	390	12,795
10	共榮産業(大阪)	李純安(大靜邑)	244	369	13,603
11	金海商事(東京)	金坪珍(濟州市)	171	361	13,842
12	南海會館(大阪)	金昌仁(翰林邑)	132	340	14,667
13	朝日사이렌(大阪)	康贊旭(翰林邑)	412	282	17,691
14	藤田土地(大阪)	金良雄(濟州市)	59	233	21,381
15	日本有機(大阪)	安在祐(表善面)	142	148	33,461
16	ABC觀光(大阪)	梁熙晋(南元邑)	127	141	34,986
17	近畿自動車教(大阪)	金奉逸(朝天邑)	117	114	43,129
18	大德企業(大阪)	李林根(大靜邑)	99	113	43,470
19	그랜드觀光(大阪)	梁熙晋(南元邑)	78	112	43,486
20	共和紙料(大阪)	金永孝(南元邑)	109	107	45,471
21	松岡단추(大阪)	李寬珩(翰京面)	53	102	47,835
22	第一觀光(東京)	梁熙晋(南元邑)	78	94	51,906
23	愛三産業(東京)	白昌鎬(濟州市)	94	64	74,089
24	眞田化工(大阪)	愼在孝(濟州市)	60	62	76,087
25	丸和(大阪)	吳文弼(翰林邑)	-	61	78,105
26	大信(大阪)	韓長淑(朝天邑)	41	58	81,535
27	新井고무(大阪)	朴達炯(濟州市)	56	55	84,416
28	東洋産業(大阪)	朴東烈(西歸浦)	-	49	93,708
29	昌慶苑(大阪)	金其彦(旧左邑)	-	49	95,145
30	第一化成(大阪)	金富雄(濟州市)	-	48	96,755
31	東京運輸(大阪)	金達孝(城山邑)	43	41	111,185

자료 : 在日本濟州道民會(1993), 『日本の濟州魂 : 在日本濟州道民會30年史』.

IV. 강충남의 경영정신과 지역사회공헌

1. 강충남의 경영정신

기업에는 제각기 독특한 경영정신이 있다. 대개 기업가의 경영철학이나 경영신조에서 나오는 경영정신은 그 기업에 몸담고 있는 종업원 전체의 공감대로 정착하여 그 기업의 정신적인 지주가 된다. 더욱이 경영정신은 기업가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개인적 신조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경영정신이라 함은 창업자가 기업경영에 대해 가지는 정신적 지주, 기본적 가치, 실천적 행동지침, 신념, 태도 등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경영자가 경영활동을 통하여 지켜야 할 정신적 및 실천적 행동지침이며, 경영철학, 경영사상과 미래지향적인 행동원리, 지도 원리를 의미한다. 그것은 기업가의 가치관이나 경영철학, 사상 등을 정신적 신조로 삼아 구성원의 실천적 경영 지침을 경영정신으로 명시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로서 대부분 경영정신은 사훈, 좌우명, 생활신조, 사시(社是), 경영철학, 경영사상, 창업이념 등 정신적 가치관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경영행동이나 실천 강령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시되지만 그것이 경영정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²⁰⁾

강충남은 창업정신과 경영이념을 포괄하여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보다 좋은 제품을 보다 값싸게 사회에 제공해서 사회의 문화발전에 공헌하고 여기에 사훈의 융성을 시도하는 튼튼하고 영구적인 기반을 쌓아 우리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시(경영 기본방침)를 성문화했다. 이러한 사시 속에 담겨져 있는 그의 경영철학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원의 목적과 회사의 목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보다 좋은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사회에 제공하는 것이 국가사회에 공헌하게 되고, 그것이 사원의 행복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셋째, 회사의 경영목적이 전 사원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다는 것이다.²¹⁾ 이처럼 그는 세 가지 사항에 초점을 두면서 현재까지도 변함없는 이 사시를 구현하기 위해 50년 동안 모든 노력을 쏟아 나갔다. 그런 의미에서 강충남은 몇 가지의 뚜렷한 신념과 정신으로 기업을 경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영정신은 보는

20) 고승희 외(1999), 『아산 정주영 연구』, 한국경영사학회, 32쪽.

21) 제주상공회의소(1995), 앞의 자료, 35~36쪽.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겠으나 그의 경영정신은 ‘誠實’, ‘信用’, ‘人間中心經營’ 등 세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겠다.

1) 성실(誠實)

강충남은 성실과 인내에 바탕을 두고 축적된 신용으로 자본을 축적하면서 기업을 성장시켜 나갔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경영활동을 영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실을 무기로 한 경영정신이라고 슬회한다. 자립심을 갖는 일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는 일이야말로 곧 자립이라고 생각했다. 어떠한 곤란에 처하더라도 헤쳐나갈 자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닌 성실이라는 무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며, 모든 것을 처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일을 위해 현재를 보다 좋게 나아가고 실제 자립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실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게 되고 더 나아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²²⁾ 결국, 그는 회사 내 회의실에 성실(誠實)이라는 액자가 걸려있을 정도로 일본 사회에서 신용과 신뢰를 쌓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을 다해 왔음을 알 수 있다.²³⁾

2) 신용(信用)

강충남은 기업경영을 통해 민족의 신용을 일본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자신의 신조대로 성실히 노력해야만 사원은 물론 일본 사회로부터 신용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가 50년간 사업을 경영하면서 주위의 사랑을 받고 외길로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은 주어진 여건에 비해 불평불만을 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매사에 자신을 가져 신용을 쌓아갔기 때문이다. 품질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했을 때 소비자가 안심하게 쓸 수 있고, 보다 값싼 제품을 만들어 내려고 밤낮을 연구했다고 한다. 결국, 신뢰와 신용을 얻는 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용의주도한 계획과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통산대신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²⁴⁾ 따라서 그는 돈을 벌더라도 신용이 뒷받침 되지 못

22) 鶴岡正夫(1981), 『在日韓國人の百年—私の生活信條』, 育英出版社, 88~91쪽.

23) 濟州青年會(1980), 『濟青春秋』, 第24号, 26~27쪽.

24) 在日濟州經濟人協會(1982), 『濟經』, 第4号, 122~126쪽.

하면 그 돈은 곧 사라지고 만다면서 앞으로 내 자신을 비롯하여 내 회사의 신용과 민족의 신용을 쌓는데 더욱더 노력하면서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3) 인간중심경영(人間中心經營)

강충남은 사원을 생명처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항상 인간중심의 경영철학²⁵⁾을 기본신조로 삼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성실하게 실천적 행동으로 이행하였다. 그는 무엇보다 사원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 사원들의 처우개선,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보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교육하고 격려하도록 노력했다. 즉 그는 사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을까를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그의 인간중심의 경영은 사원 가운데 3일 이상 결근한 사람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병문안을 하고 가정을 돌보아 줄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후지전선공업은 일본인 사원은 물론 그 가족 및 이웃들과 다른 기업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었으며, 재일한인 회사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배척과 소외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²⁶⁾

이 외에도 그는 당시 다품종소량생산이 일반적이었던 전선업계의 관행을 깨고 1962년 생산품종을 4개로 제한하는 새로운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 후 동사는 1963년부터 드디어 품질표준화와 품질관리제도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영실적이 완전히 흑자로 돌아서게 됐다. 그때부터 소품종대량생산과 고품질을 목표로 한 후지전선공업은 당시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 물결에 힘입어 생산판매 실적이 크게 신장됐으며, 1인당 생산성에서 같은 업계의 최고수준에 이르게 하여 신제품의 기술개발과 함께 업계의 정상을 겨냥하면서 매진했다. 그 결과, 동사는 공업표준화와 품질관리 우량공장으로 인정받으면서 일본 내외에 신용이 높아졌으며, 재일한인 기업이 절대로 적자경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일본의 편견을 깨뜨리는데도 기여했다.²⁷⁾

따라서 강충남은 성실, 신용, 인간중심경영을 기본정신으로 삼아 시대의 흐름에

25) 주로 저학력자인 사원들을 이끌고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사원들이 100%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즉 열악한 여건을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들 사원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일할 마음을 갖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경영의 포인트라고 생각했다. 당시 그의 생각은 사원 모두가 자기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기업집단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사시를 말단 사원에까지 몸에 배도록 힘쓰는 한편 품질표준화와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전사적으로 사원교육을 시작했던 것이다. 제주상공회의소(1995), 앞의 자료, 36쪽.

26) 제주상공회의소(1995), 앞의 자료, 38쪽.

27) 제주상공회의소(1995), 앞의 자료, 36쪽.

따라 폭넓게 기업가활동을 수행하였다. 그의 경영정신은 재일제주인 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경영에서도 항상 성실과 신용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에게 인간중심경영에 대해 몸소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결국, 그가 재일제주인 기업가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실, 신용, 인간중심경영에 의한 기업관을 스스로 실천하였으며, 품질표준화를 통해 부를 축적한 것으로 추측된다.

2. 강충남의 지역사회공헌

기업은 사람, 땅, 돈, 자원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공급받는다. 기업은 이것들을 가장 적절한 형태로 활용해서 국내외의 어떤 기업의 제품보다 양질의 저렴한 제품과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에 공급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쏟는다.²⁸⁾ 그와 같은 경영 노력의 성과를 세금과 임금 그리고 배당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그 나머지를 이윤으로 축적해서 기업발전의 재원으로 쓴다. 이처럼 기업의 공헌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풍족한 제공이며 고용과 소득 기회의 확대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영의 재원을 이루는 납세의 세원 조성이다. 곧 기업은 수익을 축적하여 새로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또 새로운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확대 재생산해 나감으로써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경영의 성과를 세금과 임금, 배당, 지역사회 등으로 분배하여 국가 운영의 기초를 풍부하게 하면서 기업 자체의 유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다.

재일제주인의 제주도내의 공헌은 제주도·제주도민들과의 물질적 관계를 기초로 하는 지연(地緣)·학연(學緣)·혈연(血緣)적 결속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교류를 의미한다. 이것은 재일제주인의 애향심, 고향인 제주도와와의 연대, 제주도민과 재일제주인과의 동반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여 왔다.²⁹⁾

재일제주인의 공헌 실적은 전체적으로 교육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공사업, 즉 새마을 사업과 같은 분야에 대한 기증이 가장 활발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초 개발단계에서는 도로, 전기·전화, 상·하수도 개설 등과 같은 생활기반 조성사

28) 삼성경제연구소(1989), 『호암의 경영철학』, 6쪽.

29) 고광명·진관훈(2006),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사회과학연구』 제14(1)집,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48~181쪽.

업, 새마을 사업, 감귤농장 초기 조성, 마을개발, 교육·문화 등이 제주도 발전에 커다란 경제적 자원으로 작용하여 왔다. 특히 1980년 이후에서 1990년대 사이에 교육사업 분야가 두드러지는 것은 기증 초기의 생활시설 사업 및 생활향상 수준에서 벗어나 제주도 경제가 발전됨으로써 교육 분야와 같은 미래지향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공헌 동기도 초기의 동정적 애향심, 경제적 우월성에서 벗어나 경제적 성취에 대한 과시와 사회적 명예, 체면 등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일제주인의 공헌이 제주도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미미하다. 이는 오히려 재일제주인의 공헌에 대해 무감각해져 가거나 나아가 의존심의 강화, 기대욕구의 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잠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이 상호 동반적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일방적이고 물질적 제공의 존재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게다가 수혜자인 제주사회의 공헌에 대한 사후처리나 심적 보상에 대한 무성의한 대처로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다.³⁰⁾ 결국, 지금까지 재일제주인은 향토발전을 위해 육영사업, 감귤진흥, 전화·전기, 수도, 도로포장, 문화·체육·새마을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왔다. 이러한 재일제주인 중에서 강충남은 일본의 경제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표 6>에서 보면 그는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금(5천만 원)을 비롯하여 제주대학교 장학금 및 학술연구기금 등(1억 원), 이도동 기념사업과 건립기금 등을 기증하였다. 특히, 그는 고향 마을에 화산초등학교 시설비(175천원)·이설비용(600천원), 전기가설 및 전화 사업비(2,350천원), 도로 포장비(1,000천원), 구판장 건축비(1,680천원), 새마을 사업비(4,000천원), 표선상고 이설비용(5천만 원), 표선중학교 및 면사무소 환경조성 지원(1,000천원), 화산초등학교 비품(2,240천원) 및 급식소 시설비(6천5백만 원), 리사무소 건축비(4천2백만 원), 체육관 건립기금(2천5백만 원), 복지회관 신축(2천만 원), 월드컵 경기장 건립기금(10,141천원), 마을 운영기금(1천만 원) 등 그동안 매년 제주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그는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향리의 새마을 사업과 표선상업고등학교 이설사업에 큰 공적을 남겼으며,

30) 김희철·진관훈(2007), “재일제주인의 경제생활과 제주사회 기증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제13집,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01~124쪽.

제13회 전국소년체전의 본도 개최에 대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재일제주인의 지역사회공헌은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제주도간의 사회적 결합의 강도를 파악해 본다는 의미가 있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치고 재일 제주인의 공헌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강충남의 공헌은 수혜를 받은 개인에게 생활 향상과 같은 경제적 도움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제주의 지역개발을 비롯한 경제발전에도 커다란 역할을 다하였다.³¹⁾ 이렇듯 그는 과거 고향발전에 대한 재일제주교민들의 애향심 충정이 뜨거웠지만 이제는 고향도 재일제주교민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할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상호간 보완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표 6> 효천 강충남의 지역사회공헌 실적 내역

(단위 : 천원, 개)

수증처	품명	종류	금액	수량	기증 목적	기증년도
제주도체육회		현금	50,000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984
제주대학교		현금	200,000		의과대학 학술연구 기금	1999
제주대학교		현금	300,000		제주대학교 장학금	1999
제주대학교		현금	300,000		이공계 학술연구 기금	2000
제주대학교		현금	100,000		의과대학 기금	2000
제주대학교		현금	100,000		언론홍보학과 기금	2000
이도동		현금	800		독립지사 및 김만덕 기념사업	1976
이도동		현금	1,000		제주상공회의소 건립 기금	1980
연동		현금	3,000		체육진흥	1980
표선면		현금	175		화산초등학교 시설비	1964
표선면		현금	1,350		세화리 전기 가설비	1973
표선면		현금	600		표선중학교 이설비	1973
표선면		현금	1,000		세화1리 전화 사업비	1973
표선면		현금	1,000		표선~가시리간 도로 포장비	1975
표선면		현금	1,680		세화1리 구관장 건축비	1975
표선면		현금	3,000		세화1리 새마을사업 기금	1980
표선면		현금	1,000		세화1리 새마을 사업비	1980
표선면	피아노	현물	1,120	1	화산초등학교 비품	1981
표선면		현금	50,000		표선상고 이설비용	1981
표선면	피아노	현물	1,120	1	화산초등학교 비품	1981

31) 고광명(2008), “재일제주인의 삶과 사회적 네트워크”, 『日本近代學研究』 第22輯, 韓國日本近代學會, 187~210쪽.

표선면		현금	1,500		표선상고 이설 축하 찬조비	1983
표선면		현금	500		표선중학교 환경조성 지원비	1983
표선면		현금	500		표선면사무소 환경조성 지원비	1983
표선면		현금	42,000		세화1리 사무소 건축비	1989
표선면		현금	42,000		화산초등학교 급식소 시설비	1993
표선면		현금	23,000		화산초등학교 급식소 신축	1994
표선면		현금	25,000		표선면민 체육관 건립기금	1996
표선면		현금	20,000		세화1리 복지회관 신축	1998
표선면		현금	10,141		월드컵경기장 건립기금	2000
표선면		현금	10,000		마을회 운영기금	2006

자료 : 吳大賢編著(1983), 『表善面郷土誌』, 泰明印刷社, 60쪽.

제주특별자치도(2007), 『愛郷의 보람』에서 필자 조사 작성.

V. 맺음말

본 연구는 효천 강충남이란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일생에 초점을 맞춰서 그가 어떤 경영철학으로 일본 사회에서 재일제주인의 자본형성에 기여했으며, 또 제주도에 대한 그의 애향심이 제주도 발전에 어떤 공헌을 했는가를 면밀히 고찰한 것으로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충남은 한 가지 일에만 성실하게 전심전력(全心全力)을 다했고 그것이 자산이 되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를 얻게 되었다. 또한 그는 외길을 걷지 않고 꾸준히 전기전선 분야로만 충실하게 한 우물을 팠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그는 해방 이후 최근까지 50년 간 이상을 일본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일제주인 기업을 성장·발전시켜 왔다. 특히 그가 1955년 富士電線工業(주)을 비롯하여 5개 회사 등을 차례로 설립·운영하여 괄목할 만한 영업성적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성실(誠實), 신용(信用), 인간중심(人間中心)의 경영정신을 바탕으로 한 그의 탁월한 경영전략과 실천적이고 추진력 있는 기업경영의 결과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고향의 발전을 위해 서귀포시 표선면에 공공시설 건설, 학교 건립, 마을 전기 가설, 도로 포장 등에 고액의 자금을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대학교에 장학금과 학술연구 기금을 기증했다. 게다가 그는 오사카지역

에서 4개 단체로 분산되어 있던 제주도 출신단체를 관서제주도민협회(關西濟州道民協會)로 통합하여 창립함으로써 제주도민의 화합을 이끌었다. 결국 이러한 애향정신과 공적을 인정받아 그는 한국에서 국민훈장 동백장(冬栢章), 석류장(石榴章), 명예경제학 박사(제주대학교)를 비롯한 국무총리,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등을 수상했으며, 일본 내에서는 통산대신상, 산업공로대상, 경영합리화상, 품질관리 우수업체상, 중소기업청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따라서 강충남은 일본 사회에서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영정신으로 사업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에도 기여하여 왔다. 더욱이 그는 富士電線工業(주) 등 여러 사업 분야에서 기업가활동을 수행하면서 그 수익의 일부를 제주지역의 교육사업과 마을 발전에 공헌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재일제주인 기업가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그는 “중요한 것은 기계나 돈이 아니고 인간이다”고 강조한 바 있어 성실과 신뢰를 중시하는 인간중심의 경영철학은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재일한인 기업가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姜龍三·李京洙 編著(1984), 『大河實錄 濟州百年』, 泰光文化社.
- 고광명(2010a), “재일(在日)제주인의 기업가 유형별에 따른 경영특성”, 『아시아연구』 제13권 제3호, 韓國아시아학회, 199~217쪽.
- 고광명(2010b), “재일(在日)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역사회공헌”, 『제주학과 만남』, 제주학연구자모임.
- 고광명(2010c), “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도에의 기증과 투자활동”, 『日本近代學研究』 第27輯, 韓國日本近代學會, 217~242쪽.
- 고광명(2009), “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특성”, 『日本研究』 제12권,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93~313쪽.
- 고광명(2008), “재일제주인의 삶과 사회적 네트워크”, 『日本近代學研究』 第22輯, 韓國日本近代學會, 187~210쪽.
- 고광명·진관훈(2006), “재일제주인의 상공업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사회과학연구』 제14(1)집,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48~181쪽.
- 고승희 외(1999), 『아산 정주영 연구』, 한국경영사학회.
- 김희철·진관훈(2007), “재일제주인의 경제생활과 제주사회 기증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제13집,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01~124쪽.
- 나가노 신이치로 편저(2010),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일한국기업인』, 말·글·빛·냄.
- 삼성경제연구소(1989), 『호암의 경영철학』.
- 서귀포문화원(2008), 『우리고장의 비석들』.
- 吳大賢編著(1983), 『表善面郷土誌』, 泰明印刷社.
- 在外濟州道民會總聯合會(2005), 『地球村 濟州人』.
-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 『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년 足跡』, 재외동포재단.
- 在日本濟州道民會(1993), 『日本の 濟州魂：在日本濟州道民會30年史』.
-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2005),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30年史』.
-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郷의 보람』.
-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2009), 『표선면 역사문화지』.

- (주)東京商工リサーチ(2009), 『平成21年版 東京信用録-近畿・北陸版 上巻』.
共同新聞社(1989), 『在日韓國人實業名鑑 1(關西版)』.
梁京姬(2009), “在日韓國人企業家가韓國의金融業界に及ぼした影響-新韓銀行を中心
に”, 『現代韓國朝鮮研究』 第9号, 現代韓國朝鮮學會, 16~30쪽.
永野愼一郎編(2010), 『韓國の經濟發展と在日韓國企業人の役割』, 岩波書店.
入管協會(2009), 『在留外國人統計』.
在日韓國商工會議所(1997), 『在日韓國人會社名鑑』.
在日濟州經濟人協會(1982), 『濟經』, 第4号, 122~126쪽.
統一日報社(1975), 『在日韓國人名錄』.
統一日報社(1976), 『在日韓國人企業名鑑』.
鶴岡正夫(1981), 『在日韓國人の百年一私の生活信條』, 育英出版社.
濟州青年會(1980), 『濟青春秋』, 第24号, 18~27쪽.